

신승범(수학교육과 90학번) 강사 인터뷰

# “아이스크림 먹고 하자” 모니터 밖에서 그를 만나다

“너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싶다.”  
공부에 지쳐 나태해진 수험생에게 거침없이 ‘짱구’라는 일침을 가하는 정신교육의 강사. ‘아이스크림 먹고 하자’, ‘고쟁이 안 풀면 지옥 간다’ 등의 유행어를 입버릇처럼 말해 온 눈썹 없는 선생님. 2014년 새로 배움터 영상에서 첫 등장만으로 화제교육관을 환호성으로 가득 채운 수능 수리영역의 1인자 신승범(수학교육과 90학번) 강사. 인터넷강의 촬영 장소인 중계동 이투스에서 그를 만나봤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수학교육과에 입학해 2학년부에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학할 때부터 학원 강사만을 꿈꾼 것은 아니다. 졸업 후 그는 학교 선생님과 학원 강사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했다. “학원 강사만을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로서의 경험을 못 해서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졸업 후 사립 고등학교 정교사로 부임했지만,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시키는 수업 외적인 조직생활을 강요해 29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학원계로 돌아갔다.”  
그는 강동구의 소규모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지금은 수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지만, 시작 당시에는 소수를 데리고 수업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꼼꼼한 강의와 문제유형의 분석가로 소문이 나 학원으로 스카우트됐다. 2009년부터는 인터넷강의 사이트인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다.

현 정부는 2007년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2016년이 1인당 월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사교육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정부의 사교육 축소 정책에 대해 신승범 강사는 단기적인 결과는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가 사교육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교육이 없던 적은 없었다. 어차피 한국은 목표하는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교육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는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습 등 공교육을 강화하면 되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교육을 축소하려면 야간자율학습을 강화하면 되지만, 이는 선생님들의 희생이 수반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을 늘려 한 명의 교원이 적은 수의 학생들을 맡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교육 축소를 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좋지 않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신 강사는 지식전달이 아닌 변화를 위한 교육철학을 고수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런 변화의 계기를 줄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단순히 강의실이라는 틀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그는 유일한 휴식인 시험 직후에 꾸준히 책을 읽는다. 단순히



신승범(수학교육과 90학번) 강사가 강의실 칠판에 '고대'를 적고 있다.

자기만족에 의한 독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위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다. “정신교육은 내가 읽고 감명받은 내용을 발췌해서 많이 활용하고, 최근 6년간은 수험생 또래인 내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선생으로서 수험생에게 들려줬던 정신교육이 아닌, 대학교 선배이

자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돈이 생기면 서울대는 책을 사고, 연대는 구두를 닦고, 고대는 술을 먹는다고 했다. 술을 많이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술을 먹는 문화 자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때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을 나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간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없이 자기 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됐다. 만약 있다 해도 그건 이야기를 통해서 수그러들 수 있다. 술자리의 좋은 점을 계승해 그런 점을 배웠으면 좋겠다.”

글 | 이주형 기자 jdi@kukey.com  
사진 | 서동재 기자 awe@

서동권(보과대 바이오의공학11), 이준현(보과대 바이오의공학11) 씨 인터뷰

# “과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로 키오스크 만들었어요”

“학생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서동권(보과대 바이오의공학11) 씨와 이준현(보과대 바이오의공학11) 씨는 직접 만든 키오스크를 3일 하나과학관 지하열람실 앞에 설치했다. 그들은 과 동기이자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는 절친한 사이이다. 키오스크를 구상하고, 개발한 장소 역시 하숙집이었다.  
서동권 씨는 작년 바이오의공학부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보과대 운영위원회에

서 좌석 사석화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캠페인의 한계를 느끼고 키오스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빈 좌석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키오스크가 있으면 사석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보과대 학사지원부에 이야기했더니 ‘학사지원부가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지원할 테니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고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에서 배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응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다. 학교 측은 하나과학관 열람실이 중앙광장, 하나스퀘어 열람실 등과 달리 따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만큼 크지 않아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나과학관 열람실은 다른 교내 열람실과 달리 학생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개인정보 문제로 RFID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하나과학관 열람실은 학생증을 RFID 카드리더기에 찍는 방식 대신 각자 발급된 바코드를 바코드 리더기에 찍는 방식을 이용한다. 서동권 씨는 “RFID 방식을 쓰면 학생증을 나눠주고 학교에서 등록만 하면 되는데 하나과학관은 학생들의 학번을 받아 바코드로 만들어 나눠 주어야 하는 불편이 있어 RFID를 빨리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과학관 지하열람실 키오스크 시범 운

영은 3월 11일 끝난다. 이전까지는 임시 바코드로 운영됐지만 3월 14일부터는 개인 바코드로 운영된다. 바코드는 보과대 학부·학과 학생회를 통해 배포되며, 다른 단과대 학생들은 카카오톡(아이디: KIOSKforKU)을 통해 신청하면 바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할 학생들에게 친구들끼리 바코드를 돌려주는 등 바코드를 악용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지연 기자 delay@

##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 2차 신청기간

: 2016년 2월 25일(목) 09:00 ~ 2016년 3월 10일(목) 18:00 까지

### ■ 신청대상

- 신입입학생,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원칙이나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재학중 1회 지원 가능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 (사유 : 신청기간 미준수) →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 심사후 국가장학금 지원)

### ■ 한국장학재단

- 사이트 : <http://www.kosaf.go.kr> 콜센터 : 1599-2000 (평일 9시 ~ 18시)
-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 유형)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미 신청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별도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별도 공지됨)
- 국가장학금은 매학기 신청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종지원자로 지정된 경우 국가 및 교내장학금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종지원자로 지정된 학생은 이종지원 금액을 해소하고 국가장학금(Ⅰ,Ⅱ유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처